

# 역점사업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이환주 남원시장, 국회 방문...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 연구 용역 등 요청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역 역점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28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방문해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 연구 용역,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이후, 전북도 예결소위 위원인 안호영 의원실, 정운현 의원실을 찾아 전북 동부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현재,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 연구용역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시 5억원이 반영된 상황이며,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전체가 반영이 안 되어 정부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산업은 남원에서 2011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화장품 우수제조시설(CGMP)이 2015년 준공되어 수출 주력 화장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만달 23일 화장품 소재 발굴 및 연구개발(R&D) 등 화장품업체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 신성장 동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역 역점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력사업이다.

화장품 산업의 핵심사업인 천연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확보가 시급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지리산 자원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유전자원 확보가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한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국토교통부 2016년, 2017년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선형연구 과제(급구배 추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미완료 및 기술력에 대한 재검토 등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어 지역민들에게 안타까

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지난 10월 18일 국토부 제2차관과 면담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로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용역비 5억원 반영에 동의하고 국가 예산 반영을 요구 중에 있다.

이환주 시장은 "국회 예결 막바지 단계로 2018년도 국가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 정지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남원에 꼭 필요한 역점사업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친환경 미생물농법 국제교류 기술연찬회 개최

### 토양조성·유기퇴비·유기질비료 만드는 방법 등 공유

순창군이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해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미생물농법 국제교류 기술연찬회가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미생물농법 국제교류 기술연찬회는 친환경농법의 유기농 퇴비 제작 기술 등 기술을 습득하고 일본 등 친환경농업 선진국의 친환경농업 트렌드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주최하고 (사)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해 30일까지 진행하며 지역 친환경농업인과 퇴비농업기술인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특히 농작물의

생산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미생물농법과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조성 및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농퇴비, 유기질비료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해 지역 친환경 농가들이 스스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강의는 일본에서 초청된 이노우에 연구원, 쿠로키 연구원, 이육신 한국 퇴비농업기술인협회 사무국장 등이 맡았다.

군은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참석할 모든 농가들이 교육 후 농업현장에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마지막 날에는 이육신 농가의 퇴비 제조 시설을 방문해 유기농퇴비, 유기질비

료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실습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유기농자재에 관한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전국적 친환경농업 선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 인증 면적만 1,322ha로 도내 최대 인증면적을 확보했다. 지난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증가한 시군은 순창군이 유일하다.

또 100억원을 투자해 순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해 2015년 완공했다.

최근에는 100여억원을 투자한 친환경연구센터도 개소해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제막식

### 남원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인증 현판 기념

남원시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시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이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 공간, 민원서비스 향상 표준화 도모를 위해 전국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실 시설, 환경, 민원행정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난 20일 대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8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현판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인증 현판을 기념하기 위해 제막식을 마련하였다.

제막식에는 강북대 남원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김 일재실장님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도 김양원 치재행정국장님과 도 관계자, 관계공무원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현판제막식 후 민원실을 함께 둘러보고 민원공무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남원시는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복합민원팀 운영, 민원처리 기간제 예고 등 민원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민원실을 찾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도 추가 설치하는 등 세심하게 갖춰 사회적 약자의 민원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작은정원과 책방을 설치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행복한 민원실을 위해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실을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 최우수 선정

남원시는 가정·상가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들의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우리시가 기후변화에 크게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2월 5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되는 저탄소생활 실천 성과보고회에서 도시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백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저탄소 생활 실천 전북대회'는 저탄소생활실천운동을 확산하고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평가를 통해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한 지자체 및 컨설턴트, 녹색이파트 등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개최된다.

저탄소생활실천운동은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서명운동 등이 해당된다.

우리는 전체세대의 54%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였고, 가정·상가에 방문하여 에너지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을 안내드리는 컨설팅 사업 운영으로 총 383톤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환경교육 및 친환경 체험, 환경체험버스 운영, 기후변화사전진행회, 에너지환경문화거리 행사, 친환경 명절보내기, 풀·온맵시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 실천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녹색생활 실천 운동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일 년 동안 캠페인과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성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원 확대

남원시가 2018년부터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33개 사업에 128명(청년일자리 29명, 일반노무 99명)이 참여했으나, 2018년에는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중점 발굴하여 '남원예촌 문화마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상수도관련 자료 DB 구축'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 36개 사업에 총 172명(청년일자리 40명, 일반노무 13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8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43명(청년일자리 10명, 일반노무 33명)으로 모집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관련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서 드림팝스 콘서트 연다

11월의 마지막 날을 화려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수놓을 '2017 드림팝스 콘서트' 가 오는 30일 순창향토관에서 화려한 막을 연다.

이날 공연에서 드림필오케스트라(지휘 김재원)는 윌리엄 텔 서곡(William tall Overture), 금과은의 왈츠(Gold and Silver), 베사메 무초(Besame Mucho)등 11월의 정서에 어울리는 귀에 익은 연주곡들을 준비했고 소프라노 장수정과 바리톤 이대혁은 드라마 '모래시계' OST로 유명한 '백학' 및 장터이리랑, 살짜기음서예 등 대중성 있는 가곡들을 협연할 예정이다.

특히 가수 강은철은 그의 히트곡인 '삼포포 가는 길' 등 7080세대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만한 노래들을 준비하였고 트로트 메들리를 연주하여 오케스트라와 관객이 하나 되는 흥겨운 시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Forever임실음악축제 성료

살얼한 날씨를 뜨겁게 달군 음악축제가 초겨울의 낭만을 선사하며 막을 내렸다.

임실군이 후원하고 (사)한국음악협회 임실지부(지부장 이동성)가 주최한 'Forever임실음악축제'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지난 29일 군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소도시에서 클래식 비틀레 실용음악, 합창, 무용 등 10여개팀이 참여, 다양한 음악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얻었다.

군은 앞으로 지역을 떠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